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**(가)**

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

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

㉠ 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.

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

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.

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

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

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

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.

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

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ⓐ 관습들

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

㉡ 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

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

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

맨살 ㉢ 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

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

잠들고 싶다.

- 이기철, ｢청산행｣ -

**(나)**

나는 차를 앞에 놓고

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.

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.

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,

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

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.

누구의 시킴을 받아

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

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.

차를 마시는 것은

이와 같이 ㉣ 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,

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ⓑ 관습이다.

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.

물에게 물은 물일 뿐

소금물일 뿐,

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

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,

㉤ 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,

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

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

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.

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.

- 김현승, ｢사실과 관습 : 고독 이후｣ -